



유전자원 이용국의 ABS 국제 규제 대응 현황

외국의 ABS 국제 규범 대응 현황

유전자원 이용국인 선진국과 유전자원부국인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ABS 국제규범에 대한 대응 방법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이용국은 ABS 국제규범 강화에 소극적인 반면, 유전자원부국은 ABS 국제규범 강화에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ABS 국제규범에 대한 인식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들 사이에서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주요 유전자원 이용국은 유전자원부국의 ABS 국제 규범 관련 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유전자원에 지속적으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익공유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협약에 준하여 외국 ABS 국제규범에 관련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이용국의 ABS 국제 규제 대응 현황

(1) 일본

나고야의정서 채택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래 일본정부의 유전자원 접근관련 지침마련 현황을 보면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필두로 다양한 법령을 정비하고 접근관련 상담창구의 개설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을 국가의 중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양자체제에서 합의에 기초하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일관된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전자원 제공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

습니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유전자원 제공국 13개국과 양자 간 워크숍,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몽골, 중국 등의 ABS당국과 MOU를 체결하여 공동연구, 기술이전, 인재육성 등 비금전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유럽 연합

간소한 접근절차, 법적 투명성, 평등한 접근절차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ABS 인식증진과 자원 보유국들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특허출원 시 원산지 공개제도 도입 등 유전자원보유국들의 주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중도적 입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위원회는 유럽연합에서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규칙의 형태로 마련하여 유럽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생물다양성보존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며, 사전 통보를 받고 상호합의의 조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ABS 국제규범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료

- 전용일·배정생(2015)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과 각국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대응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44, pp. 379-413.
- 산림청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

글 원생생물자원조사부 최강국

